

# 진안고원 산골음식 세계화 모색

### 군, 음식 전문가·군민 등과 세계화 기반 구축 학술대회 가져

진안군은 진안고원 산골음식 세계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진안고원 산골음식 세계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음식 전문가 및 군민 50여명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진안군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진안고원 산골음식 세계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음식 전문가 및 군민 50여명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진안고원의 식재료 및 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전문가 연구·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적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음식(식품)분야의 전문가들이 진안 산골음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행사 1부에서는 정혜경 호서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김미립 대구한예대학교 교수, 최지아 온고푸드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주제발표가 열렸다

정혜경 교수는 진안음식 관련 연구 조사와 '진안키'에 기록된 효자 이야기를 콘텐트로 음식산업 개발에 대해 발표하고, 김미립 교수는 '식약동원 사상'에 의한 한방 약선에 중심을 둔 진안고원의 치유음식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최지아 대표는 국내외 음식관광 시계를 조사해 진안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음식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했다.

2부에서는 장병수 전북대학교 명예

## 한우 생체정보 활용 가축사육 체계 조성

### 장수군, 환경관리 토털 스마트팜 기술 시범사업 추진

장수군은 한우에 대한 생체정보 및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와 기반 마련을 위해 생체정보 연계 환경관리 토털 스마트팜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억 원(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은 토털 솔루션 스마트팜 조성에 필요한 ICT 통합 관리프로그램, 위 체류형 센서 연계 영상상시처리시스템 등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관내 한우 번식

우 15개월령 50두 이상 일관 사육 농업경영체로 2개소를 선정 완료했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시스템의 센서 및 신호전달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통합제어가 어려웠던 기존 ICT 체계의 통합을 확립하고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해 생산성을 향상에 힘쓰겠다"며 "나아가 관련 통신 장비의 규격화와 지속적인 설비 선진화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농기센터, 과수화상병 예방 총력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이 과수원 출입 시 작업자와 농기계의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사과·배 전정 및 적과 작업시기를 맞아 농가소독에 직결되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청결관리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 △전정가위·톱 등 소형작업도구 공동 사용 금지 △작업 중 작업자·작업도구를 수시 소독할 것을 각 농가에 주문했다. 특히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는 구별하여 사용하고, 위생갓신·일회용 부직포 작업복 및 장갑 등을 착용해 외부 오염물질이 과수원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적과에 사용하는 가위는 나무 한 그루 작업을 마치고 반드시 소독한 후에 다른 나무를 대상으로 작업해야 한다. 과수원 경영주는 과수원 내부 곳곳에 소독약제 및 소독용품 비치하여 수시로 소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 농림지 돌발해충 방제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병규)는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갈색날개메미충, 미국산너벌레)에 대하여 방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을 활용하여 적기 방제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지 돌발해충은(갈색날개메미충, 미국산너벌레) 외래해충으로 5월초 앞에서 부화를 시작해 10월까지 활동하며 특히 이동성이 뛰어나 산림과 농경지를 넘나들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다.



이 예상된다. 이에 매개충의 생활사를 고려해 본격적으로 우회되는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지상방제를 추진한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농림지 돌발해충에 대하여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신속한 산림병해충 예방 및 맞춤형 적기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

### 내달 30일까지 자진신고 받아

장수군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표시방법은 적법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를 통해 제도인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개선 마련 계획에 따라 올해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군청 건설교통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 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대집행 조치 등의 행정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운성병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규정 안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번 양성화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무주군은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제 TF팀 회의를 열어 TF팀 워크숍을 개최하고 준비에 따른 의견수렴과 토의 시간을 마련했다.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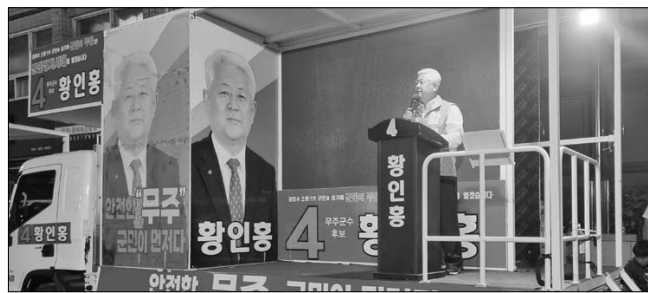
### 무주군,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TF팀 구성·회의 열어

무주군이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무주군은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제 TF팀 회의를 열어 TF팀 워크숍을 개최하고 준비에 따른 의견수렴과 토의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앞서, 추진현황 설명 및 모금·홍보 방법, 특색 있는 지역 답례품 개발과 마케팅에 관한 사항, 기부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금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4월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월 '고향사랑 기부제'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김희옥 무주군수 권한대행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될 수 있기에,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8월까지 답례품 개발과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을 앞둔 완벽한 준비를 마쳐 성공적인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소속 기호 4번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지난 26일 저녁 무주군청 앞에서 대규모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총력유세를 펼치고 지지를 호소했다.

## "군민이 주인인 군민정치시대 열겠다"

###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군청 앞 총력 유세 시행

무소속 기호 4번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지난 26일 저녁 무주군청 앞에서 대규모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총력유세를 펼치고 지지를 호소했다. 황인홍 후보는 지난 4년간 많은 예산과 국도비 확보를 확보했다며 유세의 첫 마디를 떴다.

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태권도, 태권브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무주를 태권시대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구천동의 옛 명성을 반드시 되찾겠다며 무주대유신비포트를 세계적 대규모 워터파크를 유치하고 구천동 33경을 친환경 명품 볼레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 관광의 한 축을 스포츠관광으로 설정하고, 각종 전국단위 대회 등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내겠다고 약속했다.

황인홍 후보는 '민선 7기 4년간 최선을 다했다. 경제와 소통으로 군민을 섬기며, 군민이 주인인 군민정치시대를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성주-무주간 68.4Km 고속도로 조기 개통 협의

### 서정호 무주군수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서정호 국민의힘 무주군수 후보는 빈약한 무주군 재정으로는 무주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집권여당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예산확인의 기적을 일궈 내고자 국민의힘으로 군수 당선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서정호 후보는 이를 위해 최근 경북 안동으로 가서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를 만나 "성주-무주간 68.4Km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주-무주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500만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이 무주에 오게 되어 관광객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맞춤형 꿈이룸 취업상담 운영

진안군은 군민들과 발달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전문상담사가 1:1 또는 그룹으로 맞춤형 취업 진로상담을 해주는 꿈이룸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주고용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안에서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구직, 창업 등)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5월에 개소한 진안 일자리(JOB)센터와 연계하여 고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3월 첫 시행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군청 민원실에서 13시~18시까지 취업, 창업, 이직 등을 준비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서비스는 매일 수시 접수 중이다.

참여희망자는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063-430-8059)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취업역량 교육(직장 내 에티켓 등) 및 진로상담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꿈이룸 집단 취업프로그램도 진안 청년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산골영화제 맞아 주요 가로등·도로 정비

무주군은 제10회 산골영화제를 앞두고 무주읍내 가로등 세척 작업과 주요 진입도로에 대한 예초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한 관광무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군은 31일까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해 무주읍내 △천변도로 △한풍루로에 있는 가로등 총 150개소에 대한 세척작업과 주요 진입도로 △오산삼거리 △무주IC 주변 △위임국도 37호선(가곡리)에 대해 예초작업을 실시한다.

쾌적한 도로환경과 가로등 조도 향상을 통해 축제 기간 중 관광객과 군민이 안전하게 차량통행과 야간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장수경찰서 민원실 폭력 대응훈련

장수군은 지난 28일 군청 민원실에서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실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폭행 등 민원 발생을 가정해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담당 공무원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중재, 녹음실시, 112비상벨, 일반민원 민원인 및 피해공무원 대피, 경찰출동, 가해 민원인 제압 순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해 대응 효과를 높였다.

/장수=고관호 기자